남구 살롱 드 사직 1호 '통기타·국악 살롱' 개장

6개 공간 중 처음…분기별 공연 예정

사진관·수장고·갤러리 등은 연내 완공

광주 남구 사직동 일원에 복고풍 감성으로 조성 중인 문화예술 공간 '살롱 드 사직'의 완성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통기타·국악 살롱이 지난달 28일 개장해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는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 거리 내에 6개의 살롱을 조성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간은 ▲통기타·국악 살롱 ▲아날로그 사진관 ▲수장고·기념품 판매장 ▲갤러리 살롱 ▲청년 살롱 ▲녹성상회 등이다.

6개 살롱 중 첫 번째로 문을 연 통기타·국악 살롱은 음악적 요소를 특화한 공간으로 사직맨션 인근의 빈집을 고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곳에서는 분기별로 국악과 통기타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 남구 사직동 관광 명소화 사업인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 1호 '통기타·국악 살롱'이 지난달 28일 개장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남구 제공〉

또한 살롱 내부에서는 광주 지역 토속 음식과 수제로 만든 전통주도 제공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아울러 청년 살롱, 아날로그 사진관, 수장고, 갤러리 살롱 등은 연내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갤러리 살롱은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날로그 사진관과 각종 기록물을 보관할 수장고는 이달 중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간은 운영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개방된다.

올해 초 공사를 마친 청년 살롱 역시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인문학 살롱인 녹성상회는 이달까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공간들은 근대 역사와 보존 가치를 지닌 건물을 활용해 조성되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살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음악과 인문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살롱이 잇따라 문을 열면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다"며 "사직동 관광 명소화는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광주 북구 특산품 '지산딸기' 수확 체험행사 성료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

효령동 농가서…50여명 참여

'죽향' 무농약·친환경 재배 눈길

광주 북구 지역 대표 특산품인 지산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을 보는 행사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효령동 소재 지산딸기 재배 농가에서 주민 및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산딸기 수확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서 재배돼 수도권으로 집중 출하되는 지산딸기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지산딸기 설명 ▲딸기 수확 및 시식 ▲가공품(청·홍초·잼) 품평 ▲체험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된 체험 활동을 했다.

첫날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달고 맛있는 딸기가 재배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딸기 가격을 듣고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 입 먹어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이라고 말했다.

지산딸기 맛의 비결은 최고급 품종인 '죽향'을 클로렐라 배양액을 활용해 무농약·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데 있다.

또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온기에 생산되는 딸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타이벡 농법'을 적용하는 등 육묘부터 재배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종의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

이 같은 관리의 결과 올해 지산딸기는 190여t 수확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단가로 판매돼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북구는 지산딸기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친환경 비료, 포장 용기, 친환경 하우스 필름, 납품 물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시설 장비 설치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지산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체험 활동으로 우리 구 대표 특산물인 지산딸기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산딸기가 가진 전국 최고 딸기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세계 문화·전통 놀이 오감으로 느껴요"

광산구, '지구촌 놀이터' 운영

11월까지 세계문화체험관서

광주 광산구에 세계 문화와 전통 놀이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구촌 놀이터'가 들어섰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역 내에 있는 세계문화체험관에서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구촌 놀이터를 시범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세계 놀이문화 전문 강사의 설명과 함께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여대상은 5-7세로 회당 약 15명이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34)에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시범 운영을 발판 삼아 향후 체험관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을수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옥근 기자

서구, '자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모험' 시작

관내 초등학생 20명 대상…5차례 진행

광주 서구는 1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모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인근 공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이를 글쓰기와 창작 활동으로 표현하면서 인문학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는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0명으로, 도서관 옆 숲길과 인근 공원을 산책하고 시립수목원 탐방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다음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7월5일까지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아이들은 일기 쓰기, 테라리움 제작, 탁본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경험을 자신만의 언어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을 갖는다.

서구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E.T 야구단, 제3회 이만수배 야구대회 우승

광주 동구는 1일 "E.T(East Tigers·사진) 야구단이 제3회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포시 전호생활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헐크파운데이션과 한국발달장애인 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전국 규모의 발달장애인 야구대회로, 전국 9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E.T 야구단은 이번이 첫 전국 무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열정과 더불어 지난 3년간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함께 쌓아 올린 소중한 결실"이라며 "대회를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자들의 따뜻한 참여로 유지되고 있는 E.T 야구단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